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정 병 삼*

초 록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KYPs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 3,43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분석을 사용하였고,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시간-가변적(time-variant)공변인으로 모형에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은 모든 시기에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변인들은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컸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성차를 고려해야 하며,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청소년, 자아존중감, 잠재변량성장분석, 시간-가변적 공변인

* 육군3사관학교

I. 서 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긴장과 우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Burton et al., 2004; Petersen et al., 1991). 이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많은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다(Conner & Norman, 1996; Lerner & Galambos, 1998).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자아개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다(Khanlou & Crawford, 2006).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Fergusson et al.,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진다. 또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경향이 있다(Cairns et al., 1990).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모험을 거의 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의존심이 많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Reasoner, 1982). 또한 청소년기 낮은 자존감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흡연, 약물남용, 낮은 학업성취, 우울, 자살, 임신 등 일탈적 행동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aane, 2003).

선행연구를 분석했을 때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발달하는 것이므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단적 연구가 필요하다(Boldwin & Hoffmann, 2002; Lerner & Galambos, 1998).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 급격한 신체적 변화, 사고능력의 발달, 대인관계의 확대, 학업에 대한 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 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역동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Coopersmith, 1981; 이미리, 2005; 정익중, 2007).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지지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청소년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심리적인 보호를 제공한다(Sharaf et al, 2009).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자녀가 밖에서 활동하는 장소, 내용, 친구관계 등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err & Stattin, 2000; Patterson et al., 1992).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녀의 삶에 대한 통제와 제

약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자녀관계의 질(quality)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shion & McMahon, 1998; Patterson et al., 1992). 이런 선행연구를 검토했을 때 부모-자녀애착과 지도감독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중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중단연구를 위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고 방법론적 토대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노력으로 KYPS 데이터가 구축되어 청소년 성장·발달에 관한 중단연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동안 KYPS 데이터를 분석한 중단연구들은 청소년연구에 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했다. 다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척도는 두 개의 요인(긍정적 자기평가, 부정적 자기평가)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KYPS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들 중 다수는 이에 대한 방법론적 처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리(2005)가 긍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로 요인을 구분한 이후 연구를 수행하여 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분석했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독립적인 성격으로서 다른 차원으로 놓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미리, 2005). 그러므로 본 연구 역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로 구분하여 이에 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초기 3년간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므로 추적조사가 필요한데,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5년까지의 중단자료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예측에 시간-고정적(time-invariant) 공변인들이 투입되었으나 부모-자녀관계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역동적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가변적(time-variant)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시사되었으나(Jaquish & Savon-williams, 1981; 이미리, 2005)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방법론적 보완사항을 토대로 다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가변적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종단적 영향력을 검토한다. 둘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모수추정치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자녀애착과 부모 지도감독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자녀애착과 부모 지도감독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 형성의 근원은 부모와의 애착에서 출발하고 이후 학교에서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통해 변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rbona & Power, 2003).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요인은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은 정도, 행동에 대한 적절한 존중과 관용,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 등이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 형성·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반응, 기대 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Zirkel, 1971).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가족적 환경과 관계가 깊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자녀관계를 강조했으며, Gecas(1972)는 자녀가 자신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흡수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반영효과(mirroring effect)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도 모방하게 된다는 모방효과(modeling effect)를 토대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설명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attachment)이 매우 중요하다. 애착은 John Bowlby가 제안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Paterson, Pryor & Field, 1995). 발달적 관점에서 애착은 아동기와 청소년

년기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애착 대상은 주로 일차 양육자인 부모가 해당되며, 부모애착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발달과 적응의 과정에 지속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Nickerson & Nagle, 2005).

최근에 수행된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의 사회관계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가출이나 비행 등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McGarvy et al, 2010; Parade et al, 2009).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 표현력이 높고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친구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Kostelecky, 2005). 반면에 부모와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자기 주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ilkinson(2004)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부모지도감독(parental monitoring)은 자녀의 외부활동과 적응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다(박진경 · 도현심, 2001; 천희영 · 김미해 · 옥경희, 2001). 부모가 자녀의 행방과 활동에 대해 주의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선행연구를 분석했을 때 이러한 긍정적 자원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아존중감 발달에서 성차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많은 문헌들에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으므로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Rosenberg, 1985). Matsuoka 등(2006)이 수행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1987년에서 1995년 사이에 수행된 자아존중감과 성차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

해 남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다고 보고했다.

사회화 이론에 근거한 연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다(Jaquish & Savon-Williams, 1981). Stemmler와 Paterson(2005)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이 여자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O'Malley와 Bachman(198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된 결과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남녀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자아존중감 발달에서 성차는 부모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그 발달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Gecas와 Schwalbe(1986)의 연구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부모의 도움을 더 많이 구하고 애착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 적응, 학교생활, 교우관계의 형성, 후기 청소년 및 초기 성인기의 애착형성 등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Liu, 2008; Song et al., 2009).

이상의 선행연구를 분석했을 때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는 부모-자녀의 애착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발달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성별차이를 이해하고 그 양상에 대해 분석한다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조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부모-자녀관계 역시 변화하는 변인으로 모형화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 변화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지도감독은 자아존중감 변화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확률표집을 통해 추출한 3,449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5차에 걸쳐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5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반복조사를 통해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중 2패널 3,449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들은 1차 년도에서 중학교 2학년 이었다가 5차 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로서 전국 중기 및 후기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서 적합하다(이경상·조혜영, 2004).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척도

KYPS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 중 6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했다. 원척도는 역채점 문항 5개를 포함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YPS에서 사용된 6개의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3개의 긍정적 자기평가문항과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등 3개의 부정적 자기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점 척도). 6개의 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주축요인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사각회전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 문항들은 개별적인 두 개의 요인으로 부하되었다. 구인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1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가장 많은 사례수를 포함하고 있고, 반복측정에 따른 기억효과 및 전이효과(carryover effect)를 배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인의 패턴행렬은 <표 1>과 같다.

<표 1> 요인의 패턴행렬

문 항	요인1	요인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67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12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95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48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15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662

6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43으로 낮았다. 이렇게 낮은 신뢰도 추정치가 산출된 이유는 이질적인 두 개의 요인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함께 분

석했기 때문에 판단하여 3개의 긍정적 자기평가문항만을 대상으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80으로 개선되었다. 이런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3개의 긍정적 자기평가문항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개의 문항은 단일요인으로 부하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71.4%를 설명했다.

2) 부모-자녀애착

부모-자녀의 애착은 부모와 자녀의 애정과 친밀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점 척도). 요인분석결과 6개의 문항들은 모두 단일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요인은 전체분산의 59%를 설명해서 양호한 구인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6 이었다.

3)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Patterson과 Stouthamer-Loeber(1984)의 연구를 토대로 이경상·조혜영(2004)이 제작하여 KYPS에 사용되었다. 내용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 5점척도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지도감독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에 위해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문항들은 단일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요인은 전체분산의 69.15%를 설명하여 양호한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였다.

4) 성별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른 구조모수의 일관성(consistency)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자녀애착을 시간-가변적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반복측정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절대적 적합도지수와 기술적 적합도지수를 함께 검토했고, 무조건모형과 비교하여 기울기 변량의 감소분을 효과크기로 계산했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의 지도감독을 시간-가변적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반복측정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변량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절대적 적합도지수와 기술적 적합도지수를 함께 검토했고, 기울기 변량의 감소분을 효과크기로 계산했다. 가설 3과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조모수의 불변성을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기초값으로 설정했다. 이후 각 모수에 대해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의 변화정도를 위계적 카이자승검증($\Delta\chi^2$)으로 평가했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치 및 다변량가정 점검

<표 2>에서는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애착, 부모지도감독 등 3개 변수의 5년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계수행렬을 제시했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상관계수행렬(N=3,44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566														
3	.495	.569													
4	.449	.506	.603												
5	.433	.478	.528	.599											
6	.511	.345	.381	.271	.270										
7	.376	.557	.347	.326	.349	.497									
8	.297	.332	.535	.341	.322	.446	.487								
9	.279	.313	.351	.558	.379	.379	.428	.493							
10	.295	.324	.331	.376	.586	.379	.438	.467	.523						
11	.297	.210	.170	.157	.119	.238	.164	.150	.128	.088					
12	.169	.234	.175	.124	.124	.134	.188	.116	.095	.091	.433				
13	.158	.205	.278	.202	.167	.136	.142	.205	.160	.110	.357	.386			
14	.150	.170	.200	.271	.155	.116	.120	.140	.214	.128	.363	.353	.464		
15	.148	.191	.168	.205	.279	.112	.152	.129	.161	.201	.309	.331	.390	.451	
M	20.04	20.49	20.60	20.74	21.08	12.88	13.48	13.50	13.68	13.79	9.33	9.77	9.97	10.06	10.36
SD	4.67	4.55	4.35	4.50	4.61	3.46	3.35	3.33	3.26	3.38	2.22	2.32	2.14	2.15	2.14

* 변수 1~5: 5년간의 부모-자녀애착, 6~10: 5년간의 부모지도감독, 11~15: 5년간 자아존중감

<표 2>의 표본자료가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에는 관찰값의 독립성, 국외자(outliers) 확인, 다변량정규분포, 변량-공변량행렬의 동질성 등이 있다(Stevens, 1999). 먼저 연구설계를 검토했을 때 15개 변수는 확률표집에 의한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단변량 및 다변량 국외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Z점수가 3.29이상인 값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15개 변인의 히스토그램에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점검하고 Shapiro-Wilk's 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변인 모두 다변량정규분포 가정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표본자료는 다변량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장궤적의 선형성 점검

예측변인을 투입하기 전 관찰자료에 가장 적합한 무조건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과 비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이어 두 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지수, 위계적 카이자승치 결과 등은 <표 3>에 제시했다.

<표 3> 선형고정모형과 비선형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및 적합도지수 비교

	선형성장모형		비선형자유추정모형	
절편 평균	9.42(276.47)a		9.34(247.21)	
기울기 평균	0.24(23.11)		0.25(22.84)	
절편 분산	2.32(21.95)***		2.62(17.49)***	
기울기 분산	0.10(9.47)***		0.12(8.87)***	
	χ^2	85.90	50.45	$\Delta\chi^2 = 35.45$
	df	10	7	$\Delta df = 3$
적합도 지수	p	<.001	<.001	p<.001
	RMSEA	.047	.042	$\Delta RMSEA = .005$
	NNFI	.99	.99	-
	CFI	.99	.99	-

a z값, *** p <.001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형성장모형의 카이자승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chi^2=85.90$, $df=10$, $p<.001$). 즉, 모형에서 암시된 공변량행렬은 주어진 표본자료의 공변량행렬과 통계적으로 불일치 정도가 유의미했다. 그러나 카이자승값은 표본의 사례수가 커질 수록 예민해져서 약간의 차이에도 쉽게 모형을 기각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기술적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Bollen, 1989; Fan, 1996). 기술적 적합도 지수들은 .99이상으로 매우 높은 합치도를 보였다. 이 경우에는 RMSEA값을 근거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RMSEA값을 검토한 결과 0.047로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선형자유추정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카이자승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chi^2=50.45$, $df=7$, $p<.001$), 기술적 적합도지수들은 .99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고, RMSEA값도 .042로 양호했다. 따라서 선형모형과 비선형자유추정모형의 우열을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 카이자승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의 카이자승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Delta\chi^2=35.45$, $\Delta df=3$, $p<.001$). 즉, 비선형자유추정모형은 선형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RMSEA값에도 차이가 있었다($\Delta=.005$). 이럴 경우 보다 표본자료에 적합한 비선형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부모-자녀 애착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모-자녀의 애착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중단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자녀의 애착을 시간-변화적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고,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부모-자녀애착을 시간-가변적 공변으로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공 변 인	모수추정치	적 합 도
부모-자녀 애착 1 → 자아존중감 1	0.122(17.99)***	χ^2 109.07
부모-자녀 애착 2 → 자아존중감 2	0.116(20.44)***	df 27
부모-자녀 애착 3 → 자아존중감 3	0.112(24.60)***	p <.001
부모-자녀 애착 4 → 자아존중감 4	0.112(23.42)***	RMSEA .042
부모-자녀 애착 5 → 자아존중감 5	0.122(24.26)***	NNFI .99
절편의 분산(ψ_{11})	2.69(6.21)***	CFI .99
기울기의 분산(ψ_{22})	0.11(4.06)***	GFI .99
		AGFI .98

***p <.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섯 번의 측정에서 부모-자녀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특히, 중 2시기와 고 3시기에 부모-자녀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고($\lambda_{13}=.122, p <.001$; $\lambda_{57}=.122, p <.001$), 나머지 시기의 효과의 정도는 거의 유사했다($\lambda_{24}=.116, p <.001$; $\lambda_{35}=.112, p <.001$; $\lambda_{46}=.122, p <.001$). 시간-가변적 공변인으로서 부모-자녀 애착은 중2 시기 자아존중감 분산의 10%, 고 1시기 자아존중감 분산의 2%, 고 2시기 자아존중감 분산의 2%를 추가적으로 설명했고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chi^2 = 109.07, RMSEA=.042, CFI=.99$). 이에 따라 부모-자녀 애착이 각 시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4.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종단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지도감독을 시간-가변적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고,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부모의 지도감독을 시간-가변적 공변으로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공변인	모수추정치	적합도
부모 지도감독 1 → 자아존중감 1	0.125(13.55)***	χ^2 105.47
부모 지도감독 2 → 자아존중감 2	0.112(4.71)***	df 27
부모 지도감독 3 → 자아존중감 3	0.102(16.33)***	p <.001
부모 지도감독 4 → 자아존중감 4	0.103(15.90)***	RMSEA .028
부모 지도감독 5 → 자아존중감 5	0.120(17.09)***	NNFI .99
절편의 분산(ψ_{11})	2.69(7.70)***	CFI .99
기울기의 분산(ψ_{22})	0.11(4.71)***	GFI .99
		AGFI .98

***p <.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측정시기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중 2시기와 고 3시기에 부모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고($\lambda_{13}=.125, p <.001$; $\lambda_{57}=.120, p <.001$), 나머지 시기의 효과의 정도는 거의 유사했다($\lambda_{24}=.112, p <.001$; $\lambda_{35}=.102, p <.001$; $\lambda_{46}=.103, p <.001$). 시간-가변적 공변인으로서 부모-자녀 애착은 중2 시기 자아존중감 분산의 6%, 고 1시기 자아존중감 분산의 2%, 고 2시기 자아존중감 분산의 2%를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chi^2=105.47, RMSEA=.028, CFI=.99$). 이런 분석결과에 의하여 가설 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5. 부모-자녀 애착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먼저 기초모형(baseline model)으로서 부모-자녀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수를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고정하여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했다.

<표 6> 부모-자녀 애착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동일 추정 결과

공 변 인	모수 추정치	적합도
부모-자녀 애착 1 → 자아존중감 1	.102(21.86)***	χ^2 435.37
부모-자녀 애착 2 → 자아존중감 2	.118(26.11)***	df 86
부모-자녀 애착 3 → 자아존중감 3	.127(29.59)***	p <.001
부모-자녀 애착 4 → 자아존중감 4	.127(31.32)***	RMSEA .048
부모-자녀 애착 5 → 자아존중감 5	.121(17.86)***	CFI .97

***p <.001

이러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애착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기 위해 두 집단 각각 자유롭게 모수를 추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이어서 자유추정모형이 적합도를 유의미하게 개선했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했고, 결과를 <표 7>에 제시했다.

<표 7> 부모-자녀 애착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의 자유추정치

공변인	남학생 집단 (N=1,771)	여학생 집단 (N=1,722)	적합도	
부모-자녀 애착 1 → 자아존중감 1	0.090(13.63)***	0.113(17.34)***	χ^2	208.48
부모-자녀 애착 2 → 자아존중감 2	0.113(16.92)***	0.124(20.07)***	df	56
부모-자녀 애착 3 → 자아존중감 3	0.125(18.81)***	0.128(23.33)***	p	<.001
부모-자녀 애착 4 → 자아존중감 4	0.125(20.27)***	0.130(24.21)***	RMSEA	.030
부모-자녀 애착 5 → 자아존중감 5	0.111(10.34)***	0.129(15.22)***	CFI	.99
$\Delta\chi^2$	Δdf	p	$\Delta RMSEA$	ΔCFI
226.89	30	<.001	.018	.02

***p <.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 부모-자녀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모수를 자유추정하게 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Delta\chi^2=226.89$, $\Delta df=30$, $p <.001$). 즉, 성별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부모-자녀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여학생집단에서 부모-자녀애착은 남학생에 비해 중 2에서 고 3에 이르는 모든 시기에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컸다. 특히 중학교 2학년($\Delta\lambda_{y13}=.023$)과 고등학교 3학년($\Delta\lambda_{y57}=.018$)시기에 그 차이가 가장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부모-자녀 애착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6.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먼저 기초모형(baseline model)으로서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수를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고정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했다.

<표 8>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동일 추정 결과

공 변 인	모수 추정치	적 합 도	
부모의 지도감독 1 → 자아존중감 1	.093(14.62)***	χ^2	492.37
부모의 지도감독 2 → 자아존중감 2	.117(19.29)***	df	86
부모의 지도감독 3 → 자아존중감 3	.128(22.46)***	p	<.001
부모의 지도감독 4 → 자아존중감 4	.129(23.67)***	RMSEA	.052
부모의 지도감독 5 → 자아존중감 5	.110(11.57)***	CFI	.97

***p <.001

이러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애착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기 위해 두 집단 각각 자유롭게 모수를 추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이어서 자유추정모형이 적합도를 유의미하게 개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했고 결과를 <표 9>에 제시했다.

<표 9>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의 자유추정치

공 변 인	남학생 집단 (N=1,771)	여학생 집단 (N=1,722)	적 합 도	
지도감독 1 → 자아존중감 1	0.120(8.77)***	0.130(10.51)***	χ^2	153.32
지도감독 2 → 자아존중감 2	0.113(8.76)***	0.122(11.82)***	df	54
지도감독 3 → 자아존중감 3	0.106(11.36)***	0.118(11.57)***	p	<.001
지도감독 4 → 자아존중감 4	0.109(11.48)***	0.113(11.57)***	RMSEA	.032
지도감독 5 → 자아존중감 5	0.116(10.94)***	0.122(12.72)***	CFI	.99
$\Delta\chi^2$	Δdf	p	$\Delta RMSEA$	ΔCFI
339.05	32	<.001	.020	.02

***p <.0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 부모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모수를 자유추정하게 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Delta\chi^2=339.05$, $df=32$, $p < .001$). 즉, 성별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은 중 2에서 고 3에 이르는 모든 시기에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간-가변적 공변인으로서 부모애착은 청소년기 5년에 걸쳐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와 애착이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Kostelecky, 2005; McGarvy et al., 2010; Parade et al., 2009; Paterson, Pryor & Field, 1995)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은 한 시점에서 부모-자녀애착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횡단연구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5년간 중단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가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중2 학생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다 고3 시기에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중학생은 형식적 사고가 발달하여 부모와 교사 등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심리발달상 부모보다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부모의 영향이 점점 감소한다. 그러나 고3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매우 심한 시기에 있는데 이때 다른 시기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lambda_y = .122, p < .001$)는 사실은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ulanda와 Majumdar(2009)가 수행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청소년기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와 학업수행에 대한 도전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지지와 자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지도에 있어 교사 혹은 상담가는 부모와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대한 훈습(breakthrough)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지도감독의 내용은 자녀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자녀의 안전과 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의 정도로서 이는 평소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나 의사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는 변수이다. KYPS 3년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정익중(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은 시간-고정적(time-invariant) 예측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자아존중감 기울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도감독을 시간-가변적(time-variant) 공변인으로 투입하였고, 각 측정시기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관심과 돌봄(parental care)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증 및 심리적 손상을 감소시킨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Park, 2009; Wilkinson, 2004). 청소년기는 흔히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 대해 반항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외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자녀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는 긍정적 심리적 자원을 얻게 되며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현선·이상균(2008)이 수행한 국내 연구, Bulanda와 Majumdar(2009)등이 수행한 국외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보편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이 시간-가변적 공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간 여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애착은 남자 청소년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애착으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지지가 크고 이것이 긍정적 자기평가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부모의 피드백과 관심

을 더 요구하며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 지각이 증가한다(Matsuoka et al., 2006). 이런 결과는 여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도가 남학생보다 크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Liu, 2008; Song et al., 2009).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돌봄과 관심에 더 민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은 대개 남자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와 떨어져서 외부에서 다양한 탐색을 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여자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 근처에 머물도록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더 익숙하고 부모의 반응과 돌봄에 더 민감하다(Berman & Sperling, 1991). 다만 이전의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부모애착의 영향을 밝혔다면 본 연구는 청소년기 5년간 부모와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가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성차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의 지도감독이 시간-가변적 공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부모와의 애착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간 여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도감독은 남자 청소년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관심과 돌봄에 대해 여학생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평가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Matsuoka et al., 2006; Stemmler & Peterson, 2005). 즉, 남학생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부모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가 자신의 외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해 줄 때 안정적 심리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자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연구결과는 부모-자녀관계를 교호적(reciprocal) 관계로 놓고 연구할 것을 주장한 Gecas와 Schwalbe(198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

이다. 즉,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추구하며 부모 역시 남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외부활동을 허용하지만 여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보호적(protective)이고 개입적인 양육태도를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부모지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에서는 이런 성차를 고려한 조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와의 애착, 부모 지도감독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잠재성장분석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통한 자녀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 있어 성차가 고려되어야함을 제시한다. 즉,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다면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KYPS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관계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자기평가라는 단일차원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다면적 측면이 반영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교사, 친구와의 관계 등 학교요인이 작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친구요인, 학교요인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연구에서는 친구요인, 학교요인 등을 모형에 포함한다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해 좀더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진경·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pp.129-140.
- 박현선·이상균(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제37권 제2호, pp.399-427.
- 이경상·조혜영(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263-293.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127-166.
- 천희영·옥경희·김미혜(2001). 학경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 능력지각.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0호, pp.153-163.
- Arbona, C., & Power, T. G. (2003). Parental attachment, self-esteem, and antisocial behaviors among African American,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0 No. 1, pp. 4-23.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1).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0 No. 4, pp. 427-440.
- Boldwin, S., & Hoffmann, J. P. (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1 No. 2, pp. 101-113.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Y: Wiley.
- Bulanda, R. E., & Majumdar, D. (2009).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Studies*, Vol. 18 No. 2, pp. 203-213.
- Burton, E., Stice, E., & Seeley, J. R. (2004). A prospective test of the stress-buffering model of depression in adolescent females: No support once

- agai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72, pp. 689–697.
- Cairns, E., McWhirter, L., Duffy, U., & Barry, R. (1990). The stability of self-concept in late adolescence: Gender and situational effe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1, pp. 937–944.
- Conner, M., & Norman, P. (1996). *Predicting health behavior: Research and practice with social cognition models*.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 (1981, Reprint Edition).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aane, D.M. (2003). Child and adolescent violence. *Orthopedic Nursing*, Vol. 22 No. 1, pp. 23–31.
- Fan, X. (199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hat do they have in comm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4, pp. 64–78.
- Fergusson, D.M., Beautrais, A.L., & Horwood, L.J. (2003). Vulnerability and resiliency to suicidal behaviors in young people. *Psychological Medicine*, Vol. 33, pp. 61–73.
- Gecas, V., & Schwalbe, M.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8, pp. 37–46.
- Jaquish, G. A., & Savon-williams, R. C. (1981). Biological and ecological factors in the expression of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0, pp. 473–485.
- Khanlou1, N., & Crawford, C. (2006). Post-migratory experiences of newcomer female youth: Self-esteem and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Vol. 8, pp. 45–56.
- Kostecky, K. (2005). Parental attachment, academic achievement,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alcohol and drug us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Vol. 28 No. 5, pp. 665–676.

- Lerner, R. M., & Galambos, N. L. (1998). Adolescent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programs, and polic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9, pp. 413–446.
- Liu, Y. (2008). An examination of three model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ttachments and adolescents' social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7 No. 8, pp. 941–953.
- Matsuoka, N., Uji, M., Hiramura, H., Chen, Z., Shikai, N., Kishida, Y., & Kitamura, T. (2006). Adolescents' attachment style and early experiences: a gender difference.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Vol. 9, pp. 23–29.
- McGarvey, E. L., Keller, A., Brown, G. L., & DeLonga, K. (2010). Parental bonding styles in relation to adolescent males' runaway behavior. *Family Journal*, Vol. 18 No. 1, pp. 121–139.
- Nickerson, A. B., & Nagle, R. J. (2005).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5, pp. 223–249.
- O'Malley, P. M., & Bachman, J. G.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 13 and 23. *Deviation and Psychology*, Vol. 19, pp. 257–268.
- Parade, S. H., Leerkes, E. M., & Blankson, A. N. (2009).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anxiety, and close relationships of female students over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9 No. 2, pp. 127–138.
- Park, W. (2009). Parental attachment among Korean-American adolescents.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 26 No. 4, pp. 307–320.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4 No. 3, pp. 365–377.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oces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Vol. 55, pp. 1299–1307.
- Peterso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0, pp. 247–271.

- Reasoner, R. (1982). *Building self-esteem: A comprehensive program for school*.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raf, Y. A., Thompson, E. A., & Walsh, E. (2009). Protective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on suicide risk behaviors among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s Psychiatric Nursing, Vol. 22 No. 3*, pp. 160-168.
- Song, H., Thompson, R. A., & Ferrer, E. (2009). Attachment and self-evaluation in Chinese adolescents: Ag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Vol. 32 No. 5*, pp. 1267-1280.
- Stemmler, M., & Peterson, A. C. (2005). Gender differential influences of early adolescent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affec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4 No. 3*, pp. 175-186.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3 NO. 6*, pp. 479-460.
- Zirkel, P. A. (1971). Self-concept & the disadvantage of ethnic group membership & mixtur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1*, pp. 211-225.

ABSTRACT

An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Adolescent Self-Esteem

Jung, Byong-Sam*

Self-esteem is a critical psychological factor affect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been investigat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self-esteem. Most researchers, however, have conducted cross-sectional research which has a number of limitations when seeking to identify such factors.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on adolescent self-esteem.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nalyzed 3,349 adolescents' longitudinal data collected by the KYPS for 5 years.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was employed as an analysis framework with parent-child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as time-variant covariat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wo covariates significantly affected the growth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 magnitude of the effects are larger in the female adolescent group than in the male adolescent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parental involvement is essential and sex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counseling programs aimed at enhancing adolescents' self-esteem

Key Words : adolescent, self-esteem,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time-variant covariates

투고일 : 6월 7일, 심사일 : 8월 11일, 심사완료일 : 9월 17일

*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